

문화산책

장경화

광주문화재단 이사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초입에 들어섰다. 인공지능은 인류에 새로운 문명이라 할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이미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삶에 직접적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철학자는 “AI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했다. 그 판도라의 상자는 어떻게 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수많은 재앙으로 또는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시점에 예술과 예술가에게 인공지능은 희망보다는 궁금함과 두려움으로 현기증만 가득하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예술과 과학의 관계는 인류문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진화되었다.

특히 산업혁명(18C 이후)을 거치면서 과학은 ‘색채’와 ‘소리’의 다양한 매체(피아노, 바이올린, 사진기, 녹음기, 전구, 물감, 종이 등) 발명과 급속도의 진화는 예술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어느 화가가 사진기와 물감, 종이와 캔버스 발전과는 무관한 보수적 예술로 과학 발전을 적극적 수용하지 못했단다 새로운 미술 양식이

예술가와 인공지능, 충돌일까? 협력일까?

나 사조를 신속한 반영을 않았겠지만 예술은 당대의 사회적 현상과 시대 정서를 당연하게 반영되는 결과물하기에 미술인 누군가에 의해 그 발전된 과학의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미술 양식이나 예술사조를 시도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예술의 발전에는 과학 발전(도구, 기술)의 수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발터 벤야민’(독, 1892~1940, 문화비평, 철학자)은 “과학에서의 위대한 혁신이 예술 테크니을 변형시키고, 예술 발전과 정의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과학 발전은 인공지능이라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과학과는 양상이 다르게 예술가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위협으로 느껴진다.

작곡, 연주, 페인팅, 작문, 매체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를 막론하고 예술에 직접적 영향이 어디까지일까? 또한 예술 자본시장에는 어떠한 것인가? 현시점에 어떨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다. 어디 예술에 한정되었는가? 의료, 사법, 서비스, 행정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점차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나아가 인류의 ‘빅 브라더’로 인식되어 질 것이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들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의 새로운 과학 발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술은 과학과 달리 정해진 답은 없다. 과학은 기호와 수학자의 원리에 전착하여 하나하나 성과를 쌓아가는 답이라

면, 예술은 과학적 성과의 변주와 전착으로 예술가 개인이 예술적 무덤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예술 발전이 그렇듯 이번에도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조차 모를 것이다. 과학이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예술이 답할 차례이다.

미래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과 철학, 윤리를 담아내는 시점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미래는 미래의 문제로 접어두고 오늘 당장 인공지능 시대, 미술 창작은 화가만이 해야 하는 독창적이고 전문적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과학 도구를 활용한 일반인 누구라도 예술감독자의 역할로 감정과 도덕과 윤리의 식, 시대정신과 정서를 부여하면 새로운 미술 창작품 제작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누구라도 예술가로 새로운 예술품과 예술 양식을 인공지능에 반복된 과제 입력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20C 예술이 ‘기술 복제시대’였다면 21C 예술은 ‘자동 창작시대’로 급속도 전환으로 ‘예술 소비민주화’에서 ‘예술 창작민주화’로 확장을 의미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미술(시각)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 문학, 건축 등 예술의 전 분야가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예술가는 사람일까? 인공지능일까? 또한 예술가와 인공지능은 예술이라는 주제를 앞두고 서로가 충돌하게 될까? 아니면 협력하게 될까? 현기증만 가득하다.

기고

남도 산조는 글로벌 K-Heritage 브랜드

황승옥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



남도는 우리 전통 기악곡 산조가 태동하고 꽃피운 원류의 땅이다. 전남광주는 수많은 명인과 명창을 배출하며 산조의 전통과 예술성을 이어온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이자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산조는 국악의 대를 잇는 전수 문화, 토속적 지역 문화,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내는 음악 중 단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조는 특정 명인(스승)의 음악 세계를 제자들이 이어받으며 유파(流派)를 형성하며 대를 이어 전승되어 왔다. 산조는 19세기 말 전라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특히 가야금산조는 김창조가 체계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조의 매력은 악보보다 스승의 연주와 소리를 직접 듣고 배워 몸으로 익히는 방식이 중심으로 본질적인 음악어법과 시김새, 농현, 장단의 맛과 깊이를 스승의 산조에서 배워 제자가 자신의 해석과 음악성을 더해 이어가면서 남도의 문화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것이다.

산조가 여러 세대를 거쳐 계승되면 스승의 이름을 붙여 ‘○○○류 산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대표적으로 김창조류, 김죽파류, 성금연류, 강태흥류, 최옥삼류 등의

가야금 산조가 있다.

산조는 글로벌 K-Culture(K-Heritage)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산조의 특징으로 전통적 전승 방식,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이 살아있는 음악, 음색과 리듬, 산조만의 장단, 빠름과 느림의 전개 구조 등 매력적 요소를 담고 있다.

산조음악은 자연의소리를 악기의 다양한 소리로 표현 하는 음악이며 판소리는 자연의소리를 사람이 말로 표현한 음악이다.

판소리와 사물놀이가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것처럼 산조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조는 연주자의 개성과 즉흥성이 핵심이라는 점이 현대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조의 계승과 발전은 무엇보다 남도의 전통적 가치와 예술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 전승 방식의 산조의 전통은 유지하되 오늘날의 다양성과 다변화 사회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과 세계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장르로 변화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국악 공연예술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 25회째를 맞는 ‘빛고를 기악 대제전’은 한국전통문화연구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전통 기악 경연대회로 남도 전통음악의 계승과 국악 인재 발굴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통 기악 중심으로 관악, 현악, 가야금병창 등으로 구성되고 학생에서 대학·일반부, 명인부까지 전국 국악인 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명인부 종합대상에 대통령상

이 수여되는 전국에 단 하나 밖에 없는, 기악곡 산조본향에 걸맞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회이다. 이 행사의 의미는 단순 경연대회를 넘어 광주가 남도 전통 기악의 중심지임을 알리는 문화브랜드라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무관심 속에서 매년 행사를 위한 준비가 어렵고 참여 수요와 기대는 높으나 자원의 절실함을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빛고를 기악 대제전’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글로벌 K-컬처 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관객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연구성과 해설을 곁들이고 영어와 다국어어를 사용한 소개로 글로벌 콘텐츠화,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명인이 함께 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통한 국악 창의인재 발굴 등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의 지역 내 다양한 국악 공연과 행사들도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빛고를 기악 대제전’은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매년 행사를 치르며 이어지는 동안 새로운 ‘○○○류 산조’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특별시에 국악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 남도의 국악 콘텐츠를 집적하고 운영하여 문화자산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남도를 산조의 원산지이자 정신적 뿌리로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연구와 전승, 교육과 공연, 국제교류를 통해 산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산조음악은 반드시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야 한다.

취재수첩

친구소멸도시

김은지

산업경제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구 유출은 이제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통계 속에서 전남광주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은 익숙한 문제가 됐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더 큰 위기를 수 있다. 숫자로 확인되는 인구 감소 뒤에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토대와 관계망이 사라지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이 떠난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함께 밥을 먹고, 취업을 고민하고, 미래

를 계획할 친구가 사라진다. 지역의 활력은 그렇게 조금씩 약해진다.

‘친구소멸도시’.

전남광주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다.

국가데이터저 통계는 전남광주의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광주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감소율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792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이통이 집중된 연령층은 20대와 30대였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청년 한 명이 지역을 떠날 때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인구 1명이 아니다. 그 사람이 맺고 있던 관계와 소비, 지역 활동, 미래의 가족까지 함께 빠져나간다.

전남의 일부 지역은 귀농·귀촌과 정주 정책 효과로

인구 감소를 막아냈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서 고령 인구 비중만 높아진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전남광주는 AI, 미래차, 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다. 청년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부담 가능한 주거,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토래와의 관계다. 친구가 있는 도시는 사람이 머문다. 새로운 만남이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친구가 사라지는 도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

인구소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다. 청년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자리가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을 잃는 ‘친구소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떠난 사람의 숫자를 세는 정책이 아니라, 꾸준히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사설

가뭄 피해 현실화··철저한 대책마련 중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가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다. 장기간의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상수원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다 기상청이 이런 이상기후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광주는 현재까지 가뭄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조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전남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의 경우 지난 3일 기준 49%로 전년 같은기간(70.9%)·평년(66.3%)보다 크게 낮다. 지난달 24일 저수율이 59.4%인 점을 감안한다면 1주일 사이 10%포인트 줄어 들었다.

대규모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전남 4대 농업용 저수지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나주호(54.6%), 담양호(51.8%), 광주호(37.3%), 장성호(33.3%) 등 평균 저수율이 45.9%에 불과, 예년의 60%미만 수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농업용수 가뭄 위기 경보 기준은 저수율 70% 이하 관심, 60% 이하 주의, 50% 이하 경계 단계로 돼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농업용수 상황은 이미 '경계' 단계에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다.

지역 주상수원인 주요 댐 저수율도 마찬가지다. 광주 상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은 53.82%에 불과하고 전남 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도 46.5%, 장흥댐 48%, 평립댐 55.6%, 수어댐 66.5%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런 폭염과 가뭄현상이 최소한 내달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기상청이 6일 발표한 '1개월 전망(8월 17일~9월 13일)'에서 앞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합시는 선제적 취약지역 관리와 대체 수원 확보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업용수는 하천수 등 가용 수원을 적극 활용하고, 퇴수 재이용·논물 관리 등 절수 영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섬지역 등 물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곳에 대체 수자원 확보·저수지 물 채우기 등을 하기로 했으며 생활용수 부족에 대비, 제한 급수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뭄 대책이 한낱 기우에 그칠 수 있게 조만간 앞맞는 양의 비가 내리기를 바란다.

강진 병영면 ‘도시재생 성공모델’된 이유

강진군 정책담당사인 이른바 ‘강진정답’이 인기가. 지방소멸 대응과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병영면 도시재생 정책답사 프로그램이다. 정책브리핑·현장답사·관광·문화체험을 묶은 것으로 빈집 정비, 마을호텔, 청년 창업, 하멜양조장, 병영시장 연계 행사 등을 통해 배우는 벤치마킹 코스를 말한다.

참가자들은 브리핑을 통해 빈집과 유휴공간의 정비현황, 정부 사업과의 연결현황 등을 듣고 실제 사업지를 둘러보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됐는데 지난 5월 기준 누적 방문객 13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1개 팀 741명이 다녀갔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골칫거리인 빈집과 유휴공간의 놀라운 변신이다.

강진군은 빈집을 정비해 일부는 숙박과 서비스를 결합한 독채형 숙박시설인 ‘마을호텔’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단순한 빈집 정비에 머물지 않고 인구 유입 프로그램인 ‘4도 3촌 병영스테이(일주일 중 4일은 도시, 3일은 병영면)’도 도입하고 있다.

그 결과, 참여 청년들이 마을에 정착해 이탈리안 레스토랑, 디자인 창업 등에 나서며 지역 내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다.

방치됐던 폐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 ‘하멜양조장’도 도시재생 최대성과로 꼽힌다.

현재 민간업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이 강진 쌀귀리를 활용한 ‘하멜춘매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신규개발 맥주가 올해 우리나라 주류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품질이 좋다고 한다. 이를 콘텐츠로 한 ‘하매축제’도 지난해 7만5000여명의 관광객을 불러 들였다.

또 병영 5일장을 무대로 한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행사도 연간 1만2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정도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관광편의시설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 당일치기 벤치마킹 코스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강진정답이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정책학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도시재생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2-일반가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